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오래된 현재 - 지원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운동 경험과 당사자성 - *

손 선 희**

1. 여는 글
2. 여성주의 경험 이론과 지역 ‘위안부’ 운동에 관한 연구
 - 1) 여성의 경험은 어떻게 말해지는가?
 - 2) 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분석틀
3.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4. 지역에서 나고 자란 ‘90년대’의 동반자들
 - 1) 생애 변곡점
 - 2) 막힘과 트임의 장소성
5. 피해생존자들과의 상호작용
 - 1) 정동적 연대
 - 2) 피해생존자들과의 충돌
6. 맺는 글

<국문초록>

이 글은 중앙 운동 중심의 연구에서 주변화 되었던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지원활동가 10명의 생애 경험을 구술생애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연구의 경험의 3차원적 공간을 활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90년대’에 사회운동이란 경험의 시간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포스트생존자 시대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6장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수정과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성 공동연구」의 연구비로 진행되었다. 세심하게 논평해 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국립경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arbeiten87@naver.com)

성과 사회성을 공유하면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였고, 대구·경북의 정치적 보수성과 가부장제로 인한 활동의 ‘막힘’을 체험했다. 한편으로 여성주의 밥상 공동체와 같은 여성 연대를 통해 ‘트임’의 정치 공간을 창출했다. 활동가들은 초기에는 세대 차이와 편견으로 피해생존자와 의견 충돌을 겪었으나, 공감적 경청과 “세계-이동”을 통해 정동적 연대를 이루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를 단순히 지원의 대상만이 아니라 논쟁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운동의 주체로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성을 피해자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다시-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기억에 휘말리며 스스로를 기억의 계승자이자 인권운동가로 재구성하는 생애 변곡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구·경북 ‘위안부’ 운동은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책임 의식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넘어 지금-여기의 보편적 여성인권문제로 확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오래된 현재’임을 보여준다.

* 주요어: 일본군 ‘위안부’ 운동, 대구·경북, 지원활동가, 여성주의 운동 경험, 당사자성

1. 여는 글

일본군 ‘위안부’ 운동처럼 2차 대전 이후 국가의 공식 기억에서 은폐되었던 기억을 드러내기 위해 활동했던 이들은 ‘기억의 활동가’라고 불린다.¹⁾ ‘위안부’ 운동은 이 문제가 일본 제국에 의해 자행된 전시 성범죄라는 점, 그리고 민족과 계급, 성차별이 얽힌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²⁾ 그리하여 운동은 국내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기억에 호응하면서 초국

1) Carol Gluck, “記憶の作用—世界の中の「慰安婦」”, 感情・記憶・戦争 정실비 외 옮김, 「기억의 작용-세계 속의 ‘위안부’」, 『감정·기억·전쟁』, 소명출판, 2014, 234쪽.

2)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52~366쪽; 김창록 외, 『(가칭)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8, 8쪽.

적 기억의 연대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운동의 한가운데에는 한국 '위안부' 운동의 대표적인 기억의 활동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현 정의연)가 존재한다.³⁾ 정대협은 1990년 창립 이후 한국 '위안부' 운동의 얼굴로 상징되면서 '위안부' 연구의 주요 주제이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⁴⁾ 하지만 정대협 혹은 중앙 중심의 연구 흐름 속에서 전국에 흩어져 사는 지역 거주 피해생존자⁵⁾ 들과 함께해 왔던 지역 운동 혹은 지역 거주 피해자의 삶과 지역사회의 대응 등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2014년 이후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위안부' 운동의 지역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위안부' 연구에서 '지역'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⁶⁾ 이 연구들은 지역 여성운동의 역량과 민주화 운동의 맥락 속에서 피

3)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된 여성단체들의 협의체로 1990년 11월 16일에 발족했다. 창립 이후 일본정부를 상대로 범죄인정, 공식사죄, 진상규명,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위령비(추모비) 건립 등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 아시아연대회의의 같은 초국적 연대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곧 한국 '위안부' 운동의 목적과 방법이기도 하다. 정대협은 2016년에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하여 현재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으로 재편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2014, 27~67쪽; 정의연 (<https://womenandwar.net/bylaws>, 검색일: 2024.5.11.)

4)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山下英愛, 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 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울, 2012; 박정애,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답다-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229~262쪽;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 역사』 115, 한국 사회사학회, 2017, 65~103쪽; Soh Chunghee Sarah, "The Korean 'Comfort Women': Movement for Redress", *Asian Survey*, Vol.36, No.12, 1996, pp.1226~1240; Lois West, "Introduction: Feminism Constructs Nationalism" in Lois West ed., *Feminist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pp.xi~xxxvi; Kim Hee-Kang, "Nationalism, Feminism, and Beyond: A Note on the Comfort Women Movement", *New Zealan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17, No.1, 2015, pp.1~20.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름, 혹은 할머니, ○○님, 피해자, 피해당사자, 피해생존자, 전 '위안부' 등 다양하게 불린다. 호칭은 관계 속에 선택 및 구성되고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할머니, 피해자, 피해생존자를 혼용해 사용한다. '피해생존자'란 호칭은 형언 불가능한 참혹한 시기를 견뎌온 이들에게 '살아남음'이 '생존' 그 이상의 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제가 남아있는 한 이 문제의 현재성을 환기하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생존'해 있고/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해자들이 단순한 지원활동의 수혜자를 넘어 인권운동의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령의 생존자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기억을 타자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으로 만들어왔던 연구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부상하고 있다.⁷⁾ 이처럼 '위안부' 운동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사죄와 배상 문제 중심의 운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독자적인 지원활동과 기억의 계승 활동을 제기하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관점에서 중심의 위치가 지닌 시야의 한계를 확장해준다.

앞선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지원활동가(이하 활동가), 특히 선행연구에서 찾기 힘든 대구·경북 활동가들의 생애사적 경험에 집중하고자 한다. 대구·경북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이라는 독립적인 '위안부' 운동 단체와 진보여성운동단체 <포항여

6) 이혜숙, 「한국여성학과 지역 여성주의의 모색: 경남지역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4(2), 한국여성연구소, 2014, 243~280쪽; 김명희,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기억의 연대」, 『한국여성학』 38(4), 한국여성학회, 2022, 229~270쪽; 문경희, 「경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가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 본 피해자들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 『젠더와 문화』 15(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2, 33~66쪽; 이송희, 「부산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 석영미 외 편, 『부산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역사자료집』,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 431~469쪽.

7) 2015년 기준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총 238명이었는데, 10년이 경과 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생존자는 6명이다. 『한겨레신문』, 2025.12.31. 생존자가 사라진 시대를 흔히 '포스트(post)생존자 시대'로 명명한다. 포스트는 사전적으로 '지나간' 혹은 '후에'를 뜻하는 직선적 시간간의 단절과 소멸을 뜻하지만, 포스트식민처럼 식민시대와 식민 이후는 명확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 변형, 누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포스트생존자 시대는 생존자가 없는 시대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운동을 '현재형'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 '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22(3), 한국여성학회, 2006, 137쪽; 이지영, 「일본군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증언집, 사진집,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3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193~232쪽; 장소정,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기억과 정동의 배치: 평화나비 활동가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마치다 타카시(丁田隆),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일본인의 다층적 경험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도미야마 이치로 외 지음, 『폭력에 대항하는 법』, 세창출판사, 2024, 255~298쪽; Lee Na-Young, "Multiple Encounters and Reconstructed Identities: Halmoni Activist-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Postcolonial Subjects", in Nusta Carranza Ko ed., *New Ways of Solidarity with Korean Comfort Women: Comfort Women and What Remai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3, pp. 77~110.

성회)가 지금도 지역의 생존자 이용수와 박필근에 대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구·경북은 문옥주, 이용수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대구여성회>, <시민모임>의 활동가들과 일상적 관계를 맺으며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성인권운동가로서 거듭난 공간이다.

또한, 활동가들은 상흔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포스트메모리 세대로서 피해생존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휘말린” 이들이 다.⁸⁾ 이들의 휘말림은 첫째, 피해생존자의 기억이 구조적 폭력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신체적으로 응답하고 “공감한 청중”으로서⁹⁾, 둘째, ‘위안부’ 문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지탱하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지금-여기의 기저에 흐름을 인식하고 기억의 연대자로서 연루되는 것이다.¹⁰⁾ 이들은 활동 당시 지역 ‘위안부’ 운동을 조직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위안부’ 운동의 변화를 이끌었다. 따라서 지역 활동가의 경험은 지역 ‘위안부’ 운동,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 거주 피해생존자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휘말린 ‘위안부’ 운동이란 장(場)은 활동가들의 생애 사건이자 개인의 경험을 역사적·사회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해석의 장이기도 하다.¹¹⁾

8) 포스트메모리 세대(postmemory generation)는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구술이나 유품 등을 통해 피해의 기억을 전승받은” 이후 세대를 뜻한다. 가족과 혈연 등을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개념은 나중에 다양한 매체에 의해 문화적으로 재현된 대중 담론이나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기억의 전달이 아니라 후세대의 삶의 경험과 공명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한다. 따라서 기억의 전승은 기억에 휘말리는 일이기도 하다.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휘말린다는 것」, 정상희 옮김, 『부커진 R 4호-휘말림의 정치학』, 그린비, 2012, 16~28쪽; 최정, 「포스트 식민의 망각에서 포스트메모리로」, 『한국언어문학』 127, 한국언어문화회, 2024, 307쪽; Marianne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Poetics Today*, Vol.29, No.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103~128.

9)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30(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3, 66쪽.

10) 도미야마. 위의 논문, 21~28쪽. 휘말림의 정치학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잠재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일로 여긴다. 이러한 인식은 관계적 존재론을 토대로 사람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정치적 억압에 맞서 사람들이 결속할 수 있는 ‘난로’라는 새로운 정치적 장을 확장하고자 한다. ‘위안부’ 운동의 역사는 김학순의 공개증언 이전까지 금지의 영역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난로의 영역을 지구적으로 확장했다는 의미에서 휘말림의 정치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활동가들이 어떤 계기로 지원활동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활동 과정에서 피해생존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의 구술 자료와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경험의 다면적 공간을 분석한다. 이로써 이들을 단순히 피해자의 지지자 혹은 지원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와 함께 또 다른 운동의 주체로서 의미화하고, 이 연구가 진행되었던 '2023년 현재' 대구·경북 '위안부'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지역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주의 경험 이론과 지역 '위안부' 운동에 관한 연구

1) 여성의 경험은 어떻게 말해지는가?

여성의 경험은 오랫동안 여성주의 운동에서 억압된 진실을 복원하는 핵심적 도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조안 스콧(Joan Scott)은 경험을 그 자체로 완결된 '객관적 증거'로 간주하는 전통적 인식론을 비판한다.¹²⁾ 스콧에게 경험이란 본질이 아니라 권력과 언어,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비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 초기에 피해 여성의 증언이 '강제로 끌려간 피해경험'이라는 단일한 틀로 일반화되면서 개별적 경험의 차이가 무시되었던 한계를 설명해 준다.¹⁴⁾ 즉 경험을 고정된 실체로 볼 때, 피해자는 지배적 담론 속에서 정형화된 이미지로만 재현

11) 문경희, 앞의 논문, 35쪽.

12) Joan Scott, "Experience",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Judith Butler and Joan W. Scott. eds., New York: Routledge, 1992, pp. 26~28.

13) Joan Scott, *ibid.*, pp. 38~40.

14) 김수진에 따르면, 초기 증언집(1~3집)의 증언은 객관주의 인식론의 기초 속에서 여성사의 문제로 제기되고 진상규명을 위한 문서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증언집 4권부터 탈식민주의와 서발턴(subaltern) 연구, 구술생애사의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피해여성들의 경험은 복합적으로 서술된다. 이는 피해자를 사건의 '피해자'에서 역사 참여자의 위치로, 피해 경험을 생애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침묵과 표정이 하는 말까지 듣고자 하는 '듣기'로의 전환을 뜻한다. 김수진, 앞의 논문, 35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21, 12~18쪽.

될 위험에 처한다.

여기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서발턴(subaltern)¹⁵⁾ 연구는 재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¹⁶⁾ 스피박은 '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하위 주체들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배적 정치체제 안에서 이들의 발화는 의사소통의 실패를 겪으며, 피해자 '소녀'나 인권운동가 '할머니'라는 이분법적 정형성 '사이'의 존재, 가령 지역에서 포스트식민의 상흔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¹⁷⁾ 따라서 연구자와 활동가의 역할은 서발턴을 단순히 '대변(speak for)'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현실을 적합하게 '다시-제시(re-presentation)'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¹⁸⁾

한편 활동가들은 피해자의 경험 속으로 "세계-이동(World-Travelling)"하며 신체적으로 반응하고 감응하는 "정동적 연대(affective solidarity)"를 형성한다.¹⁹⁾ 이때, "세계-이동"은 동일성을 지향하는 서구 인식론의 식민화를 탈식민화하는 개념으로 여성들이 서로의 세계로 이동하는 애정 어린 세계-이동을 통해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중적 인식론에 기반을 둔다. 또한, 정동적 연대는 세대와 경험의 차이를 지닌 피해생존자와 활동가들이 정동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공감의 감정에 동참해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연대를 뜻한다. 나아가 활동가들의 경험은 '위안부' 피해여성의 구조적 폭력에 대

15) '서발턴'이란 단어는 영국 군대의 하급 장교를 뜻하지만, 그람시(Gramsci)에 의해 "폐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하급자 혹은 때로 조력자"의 의미로 전환된다. 스피박은 서구 이론가들의 재현에서 서발턴의 몰젠더성을 비판하면서 제3세계적 위치에 있는 보통 여성, 하위주체로 재진유한다. Stephen Morton, Gayatri Chakravorty Spivak,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앨피, 2011, 24쪽;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116~118쪽.

16)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9, 455~488쪽.

17) 신동규, 「일본군 '위안부'의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 경험: 서발턴(subaltern) 여성과 일상 속의 트라우마」, 『젠더와 문화』 15(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2, 7~31쪽.

18) 스피박, 위의 책, 410쪽.

19) Maria Lugones, "Playfulness, "World"-Travelling, and Loving Perception", *Hapatia*, Vol.2, No.2, 1987, p.3; Clare Hemmings, "Affective Solidarity: Feminist Reflexivity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Feminist Theory*, Vol.3, No.2, 2012, pp.147~148.

한 경험이 지금-여기 여성의 삶에도 잠재해 있음을 알고 그들의 경험에 휘말린 이들의 경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휘말림의 정치를 통해 활동가들이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재현해 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분석틀

그간 발표된 지역 '위안부' 운동 연구는 고령의 생존자들에 대한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곁을 지켜온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피해자의 삶과 운동을 조명했다.²⁰⁾ 이혜숙은 이전부터 축적된 지역 여성운동의 역량이 경남지역 '위안부' 운동을 주도했음을 드러내고, 이송희는 부산지역 '위안부' 운동이 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출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²¹⁾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시작되었던 대구·경북 '위안부' 운동 또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명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경남의 지역적 특성, 역동적인 지원활동이 지속되는 기억의 연대를 제시한다.²²⁾ 문경희는 지역 피해자에 대한 활동가의 세심한 돌봄을 토대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상처를 가운데 두고 대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치유의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루었다.²³⁾ 이들은 고령의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지역 '위안부' 운동이 단순히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란 이자적 관계를 넘어서 돌봄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이 지역 여성인권의 주체로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장소정은 평화나비 여성청년 활동가들이 여성의 몸을 둘러싼 가부장제의 폭력 구조가 '현재'에도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폭력 경험이 '위안부' 문제와 만나며 '나의 문제'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²⁴⁾ 마치다 타카시(田田隆)

20) 김명희, 앞의 논문. 문경희, 앞의 논문. 이송희, 앞의 논문. 이혜숙, 앞의 논문.

21) 이혜숙, 앞의 논문. 이송희, 앞의 논문.

22) 김명희, 앞의 논문.

23) 문경희, 앞의 논문.

24) 장소정, 앞의 논문.

는 일본인 활동가들의 경험을 가해국의 ‘양심적 일본인’들과 피해생존자들의 초국적 연대라는 평면적 이해가 아니라 ‘일본’이란 지역, 일본 사회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삶의 조건과 개인적 경험을 들려준다.²⁵⁾ 이나영(Lee Na-Young)은 ‘위안부’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성장과 연대를 꼽는다.²⁶⁾ 나아가 피해생존자들이 연구자와 활동가들과의 복수적 조우(multiple encounters)와 증언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변화하는 힘이 되고 피해자에서 활동가이자 주체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는 지금-여기 여성들의 삶에 접속하는 여성운동으로서 ‘위안부’ 운동의 지속가능성, 지구적 맥락에서 지역 ‘위안부’ 운동을 지역 시민운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편 피해생존자 또는 활동가를 포함하여 인간의 경험은 ‘이야기된 이야기’, 내러티브의 구조를 띤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의 3차원 공간을 분석틀로 활용한다. 내러티브 연구자 진 클랜디닌(Jean Clandinin)는 “경계란 말끔하거나 분명하지 않고 영역들이 겹치고 혼합됨으로써 희미해진다”라는 치카나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지 개념을 차용해 각기 다른 인식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내러티브 연구의 3차원적 공간을 제안한다.²⁷⁾ 3차원적 공간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interaction),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상황과 관련된 장소(place)라는 연구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²⁸⁾ 이는 인간의 경험이 시간과 장소,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연속성(시간성)은 활동가들의 경험에 공통되는 시간성, 피해생존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개인적 경험의 지속,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이 글에서 경험의 시간은 활동가들이 주로 활동했던 1990년대~2000

25) 마치다 타카시, 앞의 논문.

26) Lee, *op. cit.*, pp.100~104.

27) Clandinin, D. Jea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 외 옮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2018, 92~93쪽.

28) 김영순 외 지음, 『질적 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2018, 245쪽.

년 초반에서 연구수행 기간이었던 ‘2023년 현재’를 뜻한다. 둘째, 장소성은 활동가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성)이 이들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지역(local)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의 일상이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친밀한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정치화되는 삶의 현장”이다.²⁹⁾ 나아가 지역성(locality)은 장소의 고유성에 토대하지만,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 장소가 사회적 관계의 교차적 산물이란 점에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³⁰⁾ 셋째, 사회성은 젠더와 같은 사회문화적 제도이자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³¹⁾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 및 피해생존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사회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경험은 3차원적 연구 공간으로 분석되지만, 이들의 경험은 시간성, 장소성, 사회성을 중심으로 중첩된다. 또한, 개인의 경험에 따라 이야기의 맥락성과 개별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활동가들의 경험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3.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나타난 세계와 현실을 이해·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활동가는 단순히 피해생존자의 돌봄이나 지원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 기억에 휘말린 이들이자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운동가이다. 또한, 이들은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적 기억에 “공감한 청중”으로

29) 이 글에서 대구·경북의 지역성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보수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보돈, 「새롭게 읽는 대구의 역사」, 김영화 외 지음, 『대구경북의 이해』, 양서원, 2014, 114쪽; 문재원 외 지음, 『젠더와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228쪽.

30) Doreen Massey,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Vol.78, No.2, 1993, pp.145~149.

31) 본 연구에서 젠더는 성별(sex)을 구성해내는 권력이자 인식 틀, 이를 토대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현실 속에서 젠더 수행성을 통해 주체들과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분류체계로서 이해한다.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의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13, 12~13쪽.

서 그들의 기억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만들고자 했던 기억의 활동가이다.³²⁾ 나아가 필자 역시 연구자로서 연구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재현된 기억인 증언(집)과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활동가들의 기억에 휘말린 사람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자칫 '대상화'할 위험에 대한 경계와 질적 연구자로서 내부인이자 외부인으로서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안부' 서사 연구자 1인, 여성학 연구자 1인과 연구 과정을 공유하여 비평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윤리의 철차적 기준을 실천하고자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심의(IRB No. 40525-202212-HR-082-03) 과정을 밟았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혹은 '2023년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했던 전·현직 활동가에 대한 구술생애사와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했다.³³⁾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 경험이 있는 현직 활동가들을 통해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³⁴⁾ 연구 참여자의 배경과 활동 이력은 <표 1>과 같다.

32) 김수진, 앞의 논문, 66쪽.

3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주하고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수행한 3년 동안의 연구사업은 구술자 1인당 1회 최소 1시간 30분 이상씩 총 3회에 걸쳐 4시간 30분~6시간 동안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구술자의 생애사, '위안부' 운동과의 만남, 피해자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피해자에 대한 기억, 운동에 대한 성찰 등을 질문했다. 새롭게 소개받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질문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기 구술자에 대한 추가 면담은 기초사를 보완했다.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고, 이 연구의 기초자료를 이룬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경상도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술채록 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 기록물 조사·전시 - 경상도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술채록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성 연구 - 경상도지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a;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성 연구 - 최종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b.

34) 보조참여자 히로사키 류(廣埼リュウ, 이하 히로사키)는 2023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 시, 일본인 활동가의 소개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히로사키와의 면담에는 연구사업의 책임 연구자를 비롯한 동료 연구자 2명, 재일한국인 통역가가 배석했다. 히로사키의 녹취는 여성학 석사 과정생으로 공인일본어능력시험 JLPT(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의 최고 급수 N1 일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일본어 전사를 제외한 한국어 녹취본은 녹취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녹취문을 비롯해 초고와 수정고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과 활동 이력³⁵⁾

연번	이름 (현재 연령, 성별)	활동 전·후 이력
1	안이정선 (60대, 여성)	- 70년대 고교 및 대학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 - 80년대 후반~2019년까지 <대구여성회> 산하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 <시민모임> 실행·운영·상임위원·<시민모임> 대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관장 - <정신대연구소> 연구원, <시민모임> 증언집 필진 참여
2	서혁수 (50대, 남성)	- 98년 <시민모임> 초기 학생자원봉사자 - 2018년~현재까지 <시민모임> 상임위원, 대표
3	박은희 (50대, 여성)	- 90년대 초반 학생운동 및 대학 내 여성운동 - 2001년~2004년, <시민모임> 활동가, 사무국장 - <시민모임> 증언집 필진 참여
4	차혜영 (50대, 여성)	- 90년대 초반 학생운동 및 대학 내 여성운동 - 2000년~2004년 <시민모임> 활동가, 사무국장 - 2004년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증언집 6권 필진 참여
5	박기홍 (40대, 남성)	- 1990년대 초 고교생 운동 - 2005년~2006년 <시민모임> 활동가
6	김기홍 (50대 중반, 남성)	- 1990년대 초중반 대구 Y대 기독교학생회 활동 - 1997년~1998년 <시민모임> 창립회원이자 활동가
7	정종숙 (50대, 여성)	- 1980년대 중반 학생운동 및 대학 내 여성운동 - 1989년~2021년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대표, 정책위원장
8	금박은주 (50대, 여성)	- 1990년대 초반 학생운동, 1990년대 중반 지역 언론사 기자 - 1997년~2022년 <포항여성회> 회원, 부회장, 대표 - 2019년 박필근 구술생애사 작업 연구원
9	윤정숙 (50대, 여성)	- 1995년~2016년 <포항여성회> 회원, 사무국장, 대표
10 (보조 참여자)	히로사키 류 (廣崎リュウ, (50대, 남성)	- 90년대 초반 인종차별폐지운동 - 1992년~1996년 <문옥주를 초청하는 실행위원회 시모노세키 연락회> 회원, <문옥주씨의 군사우편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모임> 대표

35) 구술생애사는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사업의 발주처의 제안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실명으로 표기했다. 이들의 활동이 갖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고려하고 기록화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도 또한 기명 사용을 허락했다. 이들 중 안이정선과 금박은주는 활동 당시 부모 성을 함께 쓰는 활동가였다. 부모 성 함께

〈표 1〉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현직 활동가 서혁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직 '위안부' 운동가이다. 활동가들의 경험은 멀게는 2~30년 전 과거에서 가깝게는 '2023년 현재'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2023년 현재'의 사회적 언어와 문화적 조건, 즉 지난 30여 년의 '위안부' 운동의 성과, 이후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이 일으킨 파장으로 인한 대중의 활동가들에 대한 불신과 '위안부' 운동이 마주하는 성찰적 계기 등 당대의 권력과 언어,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경험의 말하기라는 것을 보여준다.³⁶⁾ 또한, 이들의 활동이 중첩되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는 한국 '위안부' 운동의 창립기에서 성장기로 「2000년 여성법정」을 계기로 '위안부' 운동이 국제적인 여성인권운동으로 확장되던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대구·경북 지역 생존자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³⁷⁾ 끝으로 이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 〈시민모임〉에서 PDF 파일로 전송받은 소식지 65권,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학술논문 및 증언집, 단행본과 인터넷 검색자료 등 문헌자료를 참고했다.³⁸⁾

쓰기 운동은 1997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심각한 여아 낙태현상을 문제시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의 해파와 호주제 폐지,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학자 이이효재에 의해 제안된 상징이고 대중적인 문화운동이었다. 『여성신문』, 2018.11.20.

36) Joan Scott, *op. cit.*, pp.38~40.

37) 「2000년 여성법정」은 2000년 12월 8일~12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민간법정으로 연합국의 불완전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범재판의 완성과 전시성범죄에 대한 단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열렸다. 〈시민모임〉은 창립 이후 대구·경북에 피해 신고자 27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고, 소식지에는 매호 마다 생존자들의 동정이 실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2~193쪽; 서혁수,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위안부 운동 및 확장을 고민하며- 대구 위안부 역사관 '희움'을 중심으로」, 배지연 외 지음, 『문화융합 시대의 지역사회: 일본군 '위안부' 문육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2023, 127쪽.

38) 〈시민모임〉의 소식지는 1997년 창립 당시에는 매월 발간되다가 2000년부터 격월 발간, 2007년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발간 되었다.

4. 지역에서 나고 자란 '90년대'의 동반자들

1) 생애 변곡점

'2023년 현재'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로 모두 지역(local)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 또는 서울과의 관계에서 대구·경북은 지역이고, 일본인 활동가 히로사키가 사는 시모노세키(下関)도 도쿄와 관계했을 때 지역이다. 전 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시모노세키는 개별 단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란 로컬 국가 안에 위치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 대부분은 생애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휘말리게 된 계기로 청년시절의 '사회운동'을 지목한다. 이는 부산과 경남의 '위안부' 운동이 8~90년대 지역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의 역량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하다.³⁹⁾ 안이정선은 1970년대 학창시절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으로 쌓은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대구 이주 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운동과 <대구여성회> 활동에 투신했다. 정종숙은 1980년대 졸업정원제 반대시위와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단과대 여학생회 활동에 주력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90년대' 학번으로 90년대 대학 내 성폭력 담론이 확산되던 시기에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⁴⁰⁾ 서혁수와 김기홍은 각각 지도교수의 영향으로 <시민모임>의 학생자원봉사자, 대구 Y대 기독교학생회(Students Christian Association, 이하 SCA) 활동을 통해 수난의 상징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입문했다.⁴¹⁾ 금박은주는 풍물동아리, 박은희와 차혜영은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박은희는 1991년 '강경대 사건'을, 차혜영은 1992년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과 '위안부'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⁴²⁾

39) 이혜숙, 앞의 논문; 이송희, 앞의 논문.

40) 정다울·이나영,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하기: 대학 사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137쪽.

41) 손선희,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쓰기: 대구경북 지역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41(1), 한국여성학회, 2025, 172쪽.

42)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 1980년대 중반 미군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미군 '위안부'로 불렸다. 윤금이는 1992년 10월 8일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으로 그녀의 죽음은 희생자이자 민족 수난으로 상징화 되었다. 해방 후 거

직장인이던 윤정숙은 포항 시내 찻집에서 95년 5월 12일에 창립한 <포항 여성회> 창간 소식지를 우연히 접했고, 자신이 직접 <포항여성회>에 찾아갔다. 윤정숙은 평소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어 동인지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의 『새로 쓰는 성 이야기』를 읽었다.

그전에 제가 이제 뭐를 읽었냐면. <또 하나의 문화> 거기서 나오는 <새로 쓰는 성 이야기> 그런 책들을 그쯤에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성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그러는 거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다 여성단체, 약간 시민단체? 그래서 '이런 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소식지를, 창간 소식지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전화했고 그리고 찾아갔었죠(전 <포항여성회> 활동가 윤정숙).

1984년 창립된 <또문>은 기존 민주화 운동과 차별화된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변화를 해결전략으로 삼았다. '또 하나의 문화'는 "가부장제나 남녀불평등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이를 모든 이에게 강요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느슨한/열린 조직을 지향하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 운동 단체였다.⁴³⁾ 윤정숙은 <또문>을 통해 구체적 경험 중심의 여성주의를 습득하며 유사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히로사키는 재일교포 지인과 함께한 부산 여행을 계기로 인권 문제에 눈을 떴다. 그는 1952년 제정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의 부당함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법 14조는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 최초로 운동세력이 미군 범죄를 문제화, 정치화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윤금이 살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6쪽; 정희진, 한국여성의전화 편,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 1986~98」, 한울아카데미, 2020, 338~340쪽.

43)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1), 한국여성학회, 1996, 144쪽.

인종차별적 성격을 담고 있었다.⁴⁴⁾ 실제로 지문날인을 거부해 재판까지 받게 된 지인의 사례를 지켜보며, 히로사키는 거부 운동의 정당성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인종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제가 처음에 관부 페리(호)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은 재일교포였어요. 그 사람이 부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제부터 다시 일본에 가면 지문날인을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두 번 다시 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건 정말 너무나 얘기다. 해도 해도 너무나 얘기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귀국했을 때 그분은 완전히 [지문날인] 거부했는데 그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시민들을 재판하기 시작했어요(일본인 활동가 히로사키).

히로사키는 1993년 이십 대 중반의 나이에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찾아주기 운동>⁴⁵⁾에 참여한다. 그가 인종차별문제에 투신한 1980년대 후반은 일본 사회운동의 전환기였다. 당시 일본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운동관에서 벗어나 여성, 환경, 반핵 등 삶의 가치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중시하는 신사회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냉전 해체와 세계화, 개인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문날인 거부운동」,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596>, 검색일: 2024.3.8.)

45) 군사우편저금제도는 1895년 청일전쟁 중 만들어진 것으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 까지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군의 점령지에 야전우체국을 개설하고 '저축심 함양'을 이유로 병사들의 저축을 독려했다. 문옥주는 '위안부' 시절 이 제도를 이용해 군인들에게 팁을 모아 저축했는데 전후 돌려받지 못했다. 이를 찾아주기 위한 운동에 히로사키가 참여했고, 그는 이에 대해 일본의 진보적 주간지 「週刊 金曜日(Kinyobi), Weekly Friday」(1994.5.20.)에 「從軍慰安婦には返還されない軍事郵便貯金(중군위안부에게는 반환되지 않은 군사우편저금)」이란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이정선은 자신의 석사논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위안부' 운동의 초기 역사의 주요한 장면으로 군사우편저금찾아주기운동을 다루었다. 이정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안이정선, 「문옥주와 군사우편저금」, 배지연 외 지음, 『문화융합 시대의 지역사학: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2023, 74~78쪽.

화가 가속화되자 일본의 사회운동은 글로벌 이슈와 개인의 시민활동이 결합하며 더욱 다각화되었다.⁴⁶⁾ 이러한 흐름 속에서 히로사키는 재일한인 지문 날인 거부운동을 접했으며, 특히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는 그가 문 옥주를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⁴⁷⁾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80년대 한국의 정치적 독재와 90년대에 부상한 성 폭력·여성문제, 인종차별 등 구조적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휘말림의 정치'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청년기를 보낸 90년대 한국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며 전체주의 체제가 해체되던 시기이다. 동시에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시민언론과 시민단체의 조직화, 문화, 여성, 생태 운동이 분출하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의 시대였다.⁴⁸⁾

김영찬의 주장처럼, '90년대'는 80년대라는 '과거'와 2000년대라는 '미래'의 복합적인 시간성이 갈등하고 공존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 시기이다.⁴⁹⁾ 따라서 지역 활동가들에게 '90년대'는 안이정선과 정종숙으로 대표되는 '7~80년대'라는 과거와 90년대 학번 활동가들이 일구어낸 '2000년대 초반'이란 미래, 그리고 지역 '위안부'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현재'가 중첩되는 시간성의 공유지이다. 이처럼 '90년대'라는 시공간은 한일 양국에서 운동 양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대구·경북과 시모노세키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가능케 한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46) 정미애,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시민활동」, 『담론 201』 9(2), 한국 사회역사학회, 2006, 142~148쪽.

47) 박해남, 「1990년대의 국제화·세계화와 대중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488쪽.

48) 박해남, 위의 논문, 473쪽.

49) 김영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90년대'는 없다-하나의 試論, 1990년대'를 읽는 코드」,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출판부, 2017, 21쪽.

2) 막힘과 트임의 장소성

(1) 막힘의 장소성

‘90년대’라는 시간성을 공유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사회 규범이자 제도인 ‘젠더’라는 사회성과 ‘지역’이란 장소성이 얽히면서 비슷하면서 다르게 펼쳐진다. 박기홍은 2004년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시민모임>에서 활동했다. 정종숙이 활동하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처럼, 박기홍의 활동당시에도 지역 활동가들 사이에 상근활동비에 관한 언급은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활동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활동가들의 활동비를 묻는 건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투잡 뛰는 사람들도 과외 하는 사람들도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역할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여기만 집중하고 싶어 했던 것들도 있었고. 물론 백 그라운드에는 땅과 자유라고 하는 선배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겠죠.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좀 더 심리적이든 아니면 그냥 오늘 술 한 잔 할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형식의 지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전 <시민모임> 활동가 박기홍).

경남 밀양 출신인 박기홍에게 대구는 군 제대 후 <시민모임>에서 직업 운동가로서 첫발을 내딛은 곳이다. 그는 대구 『녹색평론』 독서모임을 통해 진보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땅과 자유’⁵⁰⁾에서 활동하며 영역을 넓혔다. 이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⁵¹⁾와 연결되면서 반전평화운동으로 관심이 확장된다. 그의 문제의식은 2005년 소식지에 쓴 평화영화 소개 글 “당신에게 평화를~”에서 잘 드러난다.⁵²⁾

50) ‘땅과 자유’는 1990년대 생태주의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잡지 『녹색평론』의 편집자와 독자 모임이 주축이 되어 만든 회원단체이다. ‘땅과 자유’는 고르게 가난하게 사는 사회와 자율, 자급, 자치를 기치로 내걸고 직접 농사를 짓는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4.17.

51) 2003년 설립한 단체로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일상화, 지역화라는 기치 아래 대구지역의 유일한 통일운동 연대 단체이다. 대구역사문화대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학중앙연구원(<http://aks.ai/GC40004248>, 검색일: 2025.6.20.)

52) 정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소식지 56호, 시민모임, 2005. 13~14쪽.

그에게 '땅과 자유'의 선배들은 심리적 지지자인 동시에 <시민모임>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었다. 활동가에게 배당되는 회원 확장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느냐는 질문에 박기홍은 “땅과 자유에 있는 선배들 중에서 후원해주고”라고 대답했다. 그는 <시민모임>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지만, 본인의 표현대로 그 범위가 '땅과 자유'에 국한되어 “확장성 거의 없었다.”⁵³⁾ 이러한 한계는 단순히 대구가 그에게 연고가 없는 타향이라거나 인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보수적 정치성향이 강한 대구 지역에서 진보적 사회운동은 타 단체와의 연대가 필수적이고, 회원 확장 또한 지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⁵⁴⁾ 이는 비단 대구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히로사키는 시모노세키에서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찾아주기 운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일제강점기 동아시아의 관문이었던 시모노세키는 당시 군사우편저금의 거점 우체국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게 이곳은 일본의 조선 지배와 전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저금 반환 불이행이라는 식민주의의 폭력성이 포스트식민으로 이어진 장소인 동시에, 피해생존자 문옥주와 친밀하게 연대했던 장소이다. 히로사키는 '선량한 시모노세키 사람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각자 연령과 관심 분야, 활동 영역이 달랐지만,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찾아주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했다. 이처럼 일본의 지역 시민운동은 평소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연대하고 지지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니까, 선량한 시모노세키 시민들.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 사회운동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그러한 분야, 노동 문제, 차별 문제,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강제연행문제, 전후 보상 문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운동, 다양한 운동하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파트헤이트. 그런 분들이 우편저금 찾기 운동에 한마음이 되셨어요(일본인 활동가 히로사키).

53) 2023년 박기홍과의 심층면담

54) 손선희, 앞의 논문, 183쪽.

문경희·유현미에 의하면, 보수성향이 강한 경남 지역에서도 여성 활동가들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안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⁵⁵⁾ 히로사키와 박기홍의 활동이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관계망은 지역의 활동가에게 심리적 혹은 물리적 지지를 제공하며 활동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여성 활동가들에게 지역은 학연을 매개로 여성운동으로 연결되는 장소이다(박은희, 차혜영, 정종숙). 이때 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지역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는 이들의 네트워크가 겹친다는 측면에서 좁지만, 그러한 겹침을 통해 다른 시민운동과 만나며 인식의 지평이 확장된다는 측면에서는 넓다. 그러므로 지역은 거주민과 외부 행위자들(가령 히로사키와 문옥주) 간의 연결에 의해 폐쇄적이고 협소한 장소성이 지역적 경계를 넘나드는 횡단을 통해 개방적인 장소성으로 재구성된다.

(2) 막힘과 트임 ‘사이’의 여성들

일상은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에서 지속되고, 장소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 사고를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⁵⁶⁾ 특히 여성 활동가들에게 ‘지역’이란 공간은 남성 활동가들과 달리 젠더에 따른 권력의 차이를 실감하고 여성으로서 위치를 자각하는 장이 된다.

안이정선은 신혼 초에 시어머니의 둘째 출산을 증용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남편과 상의 후 더는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구로 이주한 후 이웃들로부터 ‘더 이상 출산 못하는 사람’이란 시선을 받아야 했다. <대구 여성회> 대표로 활동할 때,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한 지역정서를 개선하기 위해 여아 낙태 문제를 다룬 ‘죽은 딸들을 위한 영혼 살풀이굿’을 현직 무당을 불러 대구백화점 앞 무대에서 시연했다. 금박은주 역시 ‘지역’의 일터에서 생애 처음으로 성차별을 겪었다. 대학 졸업 후

55) 문경희·유현미, 「지역성 재구성의 장으로서 일본군·위안부 운동: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시민연대와 기억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8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4, 200쪽.

56) 이재성, 「철학적 지형학으로 들여다 본 ‘장소와 경험」, 『로컬리티 인문학』 1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357쪽.

지역 신문사 기자로 입사 한 그는 기사 작성의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출입처를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언론이 주목하지 않던 시민단체를 직접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포항여성회>를 새로운 출입처로 개척했다.

박은희는 대학에서 여성학 스터디를 하면서 여성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철학을 전공한 그는 학생운동조직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접했지만, 그녀가 실천력을 담보한 것은 여성주의 도서를 통해서였다. 이는 구조적 변혁으로 일거에 사회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학생운동이 학내 구성원, 특히 대학 내 여성들이 미시적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의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분리될 수 없었고, 90년대는 여성운동의 성장 속에서 여성문제의 독자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강조했다.⁵⁷⁾ 지역 대학 내 여성운동은 박은희의 해석처럼 '학생운동 계열에서도 부문 운동'으로서 여전히 남성중심 학생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역 대학 내 여성운동은 '90년대' 사회적으로 성폭력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간성 속에서 80년대와 90년대 상황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아래 박은희의 인용문). 90년대 지역 대학 내 여성운동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조응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계 지역에서는 섹슈얼 해리스먼트가 94년도에 처음 우리가 그걸 했었지만 서울에서는 그전에 들어왔었겠죠, 아마. 우리가 좀 늦으니까(전 <시민모임> 활동가 박은희).

대구·경북지역은 흔히 가부장성이 강한 곳으로 인식된다. 2023년 전국 기혼자의 가사분담비율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아내 주로 분담' 비율은 전국 평균이 54.4%였으나 대구는 56.1%로 전국 평균보다 1.7% 높았다. 특히 '아내 전적 책임'은 27.4%에 달한 반면, '공평분담'은 13.7%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도 대구지

57) 정다울·이나영, 앞의 논문, 120쪽.

역에는 여전히 가사는 ‘아내의 역할’이란 고정관념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⁵⁸⁾ 하지만 지역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변화와 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또한, 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행위성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⁵⁹⁾ 대구·경북의 가부장성 역시 고착화된 실체가 아니라, 지역민의 젠더 수행성에 의해 강화되는 동시에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활동가)들에 의해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여성 활동가들에게 지역은 가부장제와 젠더 권력을 몸으로 겪는 압박의 장소이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개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의 장소이기도 하다.

(3) 트임을 구축하는 여성 연대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공통분모는 바로 ‘밥’이다(정종숙, 금박은주, 윤정숙). 1989년부터 <대구여성회>에서 활동했던 정종숙, 90년대 중반 <포항여성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금박은주와 윤정숙, 이들에게 여성단체는 ‘밥’을 통해 맺어진 여성주의 밥상 공동체였다. 정종숙의 활동 당시 <대구여성회>에서는 ‘평등한 노동반’이란 소모임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을 공부하고 사무직 여성의 실태조사를 했다. 대부분의 소모임 회원은 퇴근 후 저녁 7~8시에 모여 함께 공부하면서 토론했다. 그때, 직장이 있는 회원들은 활동가들을 위해 밥을 사오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주었다. 정종숙이 상근활동비 없는 여성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끈끈함’, ‘동지애’ 였다.

윤정숙은 집에서보다 <포항여성회> 사무실에서 밥을 더 많이 했다. 당시 <포항여성회>의 모토는 여성학자 오한숙희의 “밥 먹고 가!” 였다.⁶⁰⁾ 윤정숙은 사무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땐 2~30명분의 밥을 해 먹였다. 밥이 회원들을 이어주고 만남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

58)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32쪽.

59) Massey, *op. cit.*, p.149.

60) 오한숙희, 『아줌마 밥 먹구 가: 오한숙희의 자연주의 여성학』, 여성신문사, 2002, 92쪽.

력이 되었다. 이러한 밥 정(情)은 여성회 활동을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밥 짓기는 주로 여성의 역할이자 밥은 사적 공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윤정숙은 집이란 울타리를 넘어 가족이 아닌 타인, '여성회 회원들'을 위해 밥 짓기를 했다.

초기 때 저희 컨셉이 뭐냐 하면 오한숙희 선생님의 <밥 먹고 가> 책이,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밥을 해서 먹였어요. 계속. 무슨 교육 20명, 30명해도 밥 해 먹고 하는데 그런 밥을 주로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의 기억에 제가 해주는 밥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60, 지금은 이제 같이 활동은 안 하시지만 그때 되게 좋았어(전 <포항여성회> 활동가 윤정숙).

오한숙희에 따르면, 밥을 나누는 행위는 서로의 일상에 개입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일회성의 밥 나누기보다 일상의 밥이 더욱 강력하다. 또한, 밥은 서로를 한 식구로 수용하고, 쌀알이 엉기듯 정으로 결속되는 “한술밥 공동체 정서”를 불러일으킨다.⁶¹⁾ 윤정숙은 밥 나누기가 만드는 이러한 정동 때문에 기꺼이 수고로운 밥 짓기를 감수했다. 금박은주 역시 <포항여성회>의 밥정을 기억한다. 가부장성이 공고했던 경북 포항에서 <포항여성회>는 여성들의 아지트이자 안전지대였으며, 그곳에서의 연결은 보수적인 지역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김영희는 밀양 탈송전담 및 탈핵 운동의 주체인 ‘밀양 할매’와 이들에게 달려간 여성들을 ‘여성 연대(the female solidarity)’의 상징으로 규정한다.⁶²⁾ 이들의 연대는 농성장에서 싸움도 하고 연대자들을 위해 밥을 해야 하는 ‘할머니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 여성 연대자들이 직접 밥 짓기와 농성장 관리를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대구·경북 여성 활동가들의 연대 역시 이러한 ‘밥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밥은 여성을 특정 젠더 범주에 구속하

61) 오한숙희, 앞의 책, 92~97쪽.

62) 김영희, 「밀양 탈송전담/탈핵 운동 주체로서의 '여성': '밀양 할매'와 '여성 연대(the female solidarity)」, 『동방학지』 18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123쪽.

는 도구가 아니라 나눔과 생명을 실천하는 매개이다.⁶³⁾

이런 맥락에서 정종숙, 윤정숙, 금박은주가 경험한 <대구여성회>와 <포항여성회>의 여성주의 밥상 공동체는 지역 남성들의 폭언으로 인한 폭력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서로를 지켜낸 생명의 연대였다.⁶⁴⁾ 또한, 이는 활동가와 회원, 노동자와 운동가라는 위치와 연령의 차이에서 오는 정동의 부조화를 여성주의로 극복하며 지역의 성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정동적 연대'이다. 나아가 이들은 여성에게 지워진 밥 짓기라는 가사노동을 여성 간의 연대이자 보살핌으로 재정의 했다. 집 '안'이란 사적 공간을 벗어나 공적 공간에 모인 여성들은 상호 돌봄으로서의 밥 짓기를 통해 '여성회'라는 공간을 여성주의 정치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생명 연대의 정신은 <시민모임>창립 이후로도 이어졌으며,⁶⁵⁾ 결과적으로 지역은 여성들이 연결을 통해 상호돌봄의 정치를 실천하고 지역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장소가 되었다.

5. 피해생존자들과의 상호작용

1) 정동적 연대

활동가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피해생존자의 말하기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기에 듣기에는 언어의 불투명성을 염두에 두는 청자의 민감성이 요구된다. 또한, 인간의 정동은 신체와 신체의 만남을 통한 수행이기 때문에,⁶⁶⁾ 여성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휘말리는 경험을 통해 고통이 전이되는 경험을 한다.

그것도 이제 젊은 우리 앞에서 꺼내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63) 김영희, 위의 논문, 151쪽.

6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앞의 2023a년 보고서, 42쪽, 정종숙의 구술.

65) 손선희, 앞의 논문, 174쪽.

66) Elaine Scarry,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ld*, 메이 옮김, 『고통 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 봄, 2018, 36쪽.

꺼내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시더라구요. 하... 사실은 우리가 가슴에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 많이 좀 받고 있었구나, 당시에 그렇게 좀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평생 살면서 나는 가슴에 묻어 둘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게 될 줄은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전 <대구여성회> 활동가 정종숙).⁶⁷⁾

이처럼 공감적 경청은 안전한 발화의 공간이 부재했던 생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고통이 목소리를 갖는 것은 언어화를 통해 대상화하고 이 문제를 우리의 인식 틀 안에 가시화시켜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폭력으로 파괴된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⁶⁸⁾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의 말하기와 활동가의 경청은 '정동적 연대'를 만든다. 정동적 연대(affective solidarity)는 화자와 청자의 정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해 불편한 감정도 포용하고 공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⁶⁹⁾ 가령 평화나비의 여성 청년들처럼 타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정동적 연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으로, 국제적 여성인권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피해생존자들과 젊은 활동가들은 '90년대'라는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경험의 시공간이 다르다. 자신들보다 40년 이상 어린 젊은 활동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될 날'을 만든 것은 바로 그 젊은 활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생존자들이 '이런(전시 성폭력의 경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여성운동의 역사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동적 연대는 인종과 계급, 연령이 다른 여성들이 서로의 세계로 이동하는 애정 어린 "세계-이동(World-Travelling)"을 통해 가능하다.⁷¹⁾ 마리아 루고네

6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앞의 2023a년 보고서, 49쪽, 정종숙의 구술.

68) 스캐리, 앞의 책, 261쪽.

69) Hemmings, *op. cit.*, pp.147~148.

70) 장소정, 앞의 논문, 101쪽.

71) Lugones, *op. cit.*, p.3.

스(Maria Lugones)에게 세계는 몸을 가진 사람이자 실제 사회를 의미하고, 세계는 계층, 인종이나 문화, 젠더의 차이에 의해 구획된 '세계들'이다.⁷²⁾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몸들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서로 다른 몸(세계)을 경험하는 '여행자'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은 "세계-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일본의 페미니스트이자 작가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는 우연히 어느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고,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문옥주의 청중이 되었다. 그녀는 1993년 9월부터 18차례 대구를 방문해 문옥주의 이야기를 들었고, 1996년 2월 문옥주의 일대기 일본어판을 발간했다.⁷⁴⁾ 안이정선에 의하면, 모리카와는 문옥주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고 문옥주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배웠다. 문옥주 또한 모리카와의 반복되는 공감적 경청을 통해 깊은 불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1993년 일본 사이타타(埼玉)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안이정선은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찾아주기 운동> 단체에서 발간한 「내 저금 내놔라」라는 한글 제목의 자료집을 발견했다. 당시 부스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리카와였다. 이를 계기로 안이정선과 문옥주, 모리카와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안이정선은 1955년 한국전쟁 후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났고, 모리카와는 2차 대전 후 1947년 후쿠오카에서 출생했다. 양국의 포스트메모리 세대 안이정선과 모리카와는 '문옥주'의 기억에 휩쓸리면서 '위안부' 운동의 동지이자 듣는 자들의 우정을 쌓아갔다. 모리카와는 문옥주 사후 안이정선과 꾸준히 서신을 교환하고, 운동의 연대자로 함께 해 왔다. 또한, 모리카와와 안이정선은 문옥주를 비롯한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던 연구자이자 활동가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과 다른 과거의 경험을 가진 피해생존자들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삶을 바꾼 "세계-이동"의 여행자이다.⁷⁵⁾ 두 사람은

72) Lugones, *ibid.*, pp.8~11.

73) Lugones, *ibid.*, p.12.

74) 森川万智子, 文〇〇ビルマ戦線橋師団の「慰安婦」だった私, 김정성 옮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30쪽.

75) Lugones, *op. cit.*, p.3.

대구와 후쿠오카 지역에서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적 변혁의 길에 동행했다. 이들은 '위안부' 운동에서 국경/경계를 넘어 듣기를 통해 피해생존자들과 정동적 연대를 쌓았던 기억의 연대자이다.

2) 피해생존자들과의 충돌

정동적 연대는 피해생존자와 활동가 간에 존재하는 경험의 차이로 인한 정동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함께한다. 그러나 연대의 과정에는 활동가 개인의 삶의 맥락과 피해생존자와 활동가 간 '위안부' 운동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드러난다.

첫째, 젊은 활동가들이 노인여성인 피해생존자들과 관계할 때, 활동가 개인의 삶의 맥락에 의해 친밀한 정도가 달랐고 지원활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페미니즘 이론서에서 활자로만 접했던 피해생존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자신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했다. 즉 피해자들은 과거의 고통에 함몰된 어둡고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존재일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무거운 감정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⁷⁶⁾ 그러나 실제로 만난 생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에 대한 게 관계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허물없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막 갔던 거.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되게 긴장하고 위안부 피해자 뭐 약간 이런 게 저한테 이제 편견 같은 게 있어서 좀 너무 슬프고 막 이런 감정으로 갔는데, 할머니 너무 평범한 일상을 보면서 할머니하고 좀 허물없이 지냈던 것 같고, 제가 할머니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저희 활동가 중에 할머니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는 거, 있었어요. 자기 친할머니랑, 할머니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시집살이시켰고, 그제 엄마가 고생했는데 이 분이 할머니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박필근 할머니 만나러 가는 데 약간 조금 주저하는 거예요(전 <포항여성회> 활동가 금박은주).⁷⁷⁾

76) 권김현영, 「성폭력 폭로 이후의 새로운 문제, 피해자화를 넘어」, 김은실 편,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페미니스트 크리티크』, Humanist, 2018, 39쪽.

그럼에도 활동가 개인의 삶의 맥락에 따라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관계 맺기에는 부침이 있었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활동가는 자신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던 기억 때문에 박필근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갈등을 느꼈다. 반면 할머니와 각별했던 금박은주는 상대적으로 노인여성에 대한 거리감이 적었다. 이는 활동가 개인의 가족사적 맥락이 세대 간 연대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⁷⁸⁾

둘째, ‘위안부’ 운동의 방향과 운동 주체, 즉 당사자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은희와 차혜영은 활동 당시 당사자와 함께하는 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991년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 ‘위안부’ 피해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증언의 시대’가 열렸다.⁷⁹⁾ 그러자 생존자들은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의 일환으로 기억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초기 증언과 달리 동원의 강제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젊은 활동가들은 이러한 증언의 변화가 대중과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했으며, 피해당사자의 요구와 유관 단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박은희처럼 생존자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했다.

저희 세대는 박희정, 박은희 선배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토론과 접점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 동의가 되는 측면이에요. 제가 그냥 그 위치[사무국장]였다면 저도 더 싸웠겠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마냥 좋지는 않았을까? ... [특정한 피해생존자와 갈등] 많이 봤거든. 힘들어 울기도. 하고 사실 운동을 제대로 하는 그 과정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마냥 그냥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거지.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이나 손에 물질화를 시간을 구현해내는 그 과정인데 선배는 그 과정들의 중요한 핵심이었고 할머니랑 바라바라 싸우기도 하고 한숨

7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앞의 2023a 보고서, 173쪽, 금박은주의 구술.

78) Margaret Cruikshank,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이경미 옮김, 『나 이들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동녘, 2016, 325쪽.

79) 이태준, 「일본군 ‘위안부’ 여성의 주체화 과정과 사회적 성원권 연구: 이용수의 삶과 투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23, 60쪽.

돌리면서 하- 좀 다르게 어떻게 풀지 고민의 연장이었고(전 <시민모임> 활동가 박기홍).

박기홍은 선배 활동가들이 피해생존자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대립했던 과정을 단순한 '갈등'이 아닌 '싸움'이자 '토론'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논쟁이 운동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저희는 피해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운동 전체를 본다면, 저희 활동가들은, 저희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안, 사안이 다 다르고, 할머니들이 진짜 그때 100명도 넘게 있었는데, 김순악 할머니 사안으로 우리가, 뭐 전체 이렇게 미군기지에서 일한 이런 사안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간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운동이라는 게(전 <시민모임> 활동가 차혜영).

차혜영은 활동가가 피해자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운동 전체'의 관점에서 사안을 조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존자들의 삶은 유사하면서 다르다. 가령 해방 후 기지촌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김순악의 사례처럼, 식민지 피해가 포스트식민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지속되는지 페미니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존자들의 다양한 피해 경험을 정형화된 피해자 정체성으로 집단화하거나, 특정 개인의 서사에만 매몰되어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쪽 돌아보면 할머니는 스스로 하고 싶었다. 누구 도움 없이. 근데 그건 저는 되게 당연한 욕구라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이, ... 당사자잖아요 (전 <시민모임> 활동가 김기홍).

그러나 '2023년 현재' 김기홍은 '위안부' 운동이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문옥주와 이용수는 피해자

회⁸⁰⁾라는 당사자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는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이리한 당사자 주도 운동의 연장선에서 얘기했다. 시민모임 소식지 62호에는 700차 수요시위 특집으로 피해생존자 이용수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시민모임> 여성 활동가에 의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용수는 활동가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출했다.

회원들과 사무국 사람들을 내가 어루만지고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욕심에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야단치고 그러거든. 거울을 보고 내가 그랬어 “용수야 성질 좀 고쳐라” 그러는데 잘 안 고쳐져. 일본놈들한테고 정부한테고 막 큰소리치고 싸워야 하는데 성질이 고쳐지나. 그런 거는 당신들이 이해해야 돼. 성질이 고우면 내가 싸울 수 있나. 일본 갔을 때 무라야마 총리보고 “네 이놈 거기 셋거라. 니놈들이 날 끌고 가지 않았으면 나도 총리도 되고 대통령부인도 됐을 거다.” 그렇게 소리쳤는데 당신들도 이용수하고 같이 싸우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돼.⁸¹⁾

이 글에는 회원들과 활동가들, 피해생존자 간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이용수가 자신의 ‘고약한[강한] 성격’에 대해 활동가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은, 일본과 한국 정부 같은 거대 권력과 싸우기 위해 당사자로서 주체성을 지키려는 고군분투의 발로이다. 김기홍의 언급처럼, 이용수는 당사자 중심으로 당사자가 주도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젊은 여성 활동가들과 피해생존자 간의 갈등은 피해자 중심주의 혹은 당사자 중심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준다.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는 원래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에 공격과 방어를 진행하는 소송의 형식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이다. 정치적으로

80) ‘현생존자 강제군대위안부 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피해자회)는 1993년 12월 10일 지역의 문옥주와 이용수를 비롯해 다른 지역의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결성한 피해 당사자들의 단체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령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령경, 「우연과 우연이 겹쳐 필연, 운명으로-문옥주와 모리카와 마치코의 삶과 인연」, 배지연 외 지음, 『문화융합 시대의 지역사회: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2023, 104쪽.

81)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소식지 62호, 시민모임, 2006, 5쪽.

당사자주의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전문가의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정치적 약자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당사자주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그들만의 문제'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⁸²⁾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협소한 당사자주의에 매몰될 경우, '피해당사자만의 문제'라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에서 피해자를 피해의 강제성과 생존자로 한정할 경우 피해자는 협소하게 정의된다. 양현아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를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만 국한시켰던 피해자의 협애화(狹隘化)를 비판한다.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생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실상의 피해자", 피해자들의 가족, 친지 그리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피해자성이 있다.⁸³⁾ 피해자의 중층성은 이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피해회복의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안부' 문제해결의 과정은 집합적 피해회복의 과정과 일치하게 된다.⁸⁴⁾

그러나 피해자의 중층성을 논할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안부' 문제의 발생에 동조했던 식민지 조선의 과거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들의 피해를 묵인하거나 부인해왔던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도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무조건 옳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을 더 강조한 것이다.⁸⁵⁾

상혼의 기억을 경험하지 않은 포스트메모리 세대이자 지식인 젊은 여성 활동가들과 피해생존자들 간에는 '여성' 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경험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의 강고한 연령주의와 유교적 가부

82)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오월의 봄, 2020, 255~275쪽.

83) 양현아,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6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13쪽.

84) 양현아, 위의 논문, 40쪽.

85) 권김현영, 앞의 책, 44쪽.

장제 질서 속에서 이들의 논쟁은 종종 버릇없는 행동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대학 내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박은희와 차혜영은 90년대 수평적 조직구조와 관계, 일상의 정치를 실천했던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 20대를 보냈다.⁸⁶⁾ 따라서 이들은 연령주의를 넘어서 피해생존자들을 한 사람의 여성이자 함께 하는 운동의 주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들은 피해를 개인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의 과제로 확장하려는 ‘피해자 관점’의 재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논쟁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 활동가들은 피해자를 대표 혹은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성을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제로 ‘다시-제시’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위안부’ 문제에서 당사자성의 ‘금지’ 영역을 한국 사회 전체로 확장하여 당사자성의 ‘난로’ 영역을 넓히고자 했던 휘말림의 정치를 실천했다.

6. 맺는 글

이 글은 정대협 혹은 중앙 중심의 ‘위안부’ 운동 서사에서 소외되었던 대구·경북 지원활동가들의 생애 경험을 토대로 지역 운동의 역동성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현직 활동가 10명에 대한 구술생애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기억에 휘말리고 상호작용하면서 기억의 연대자로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다.

‘90년대’를 통과했던 활동가들은 청년시절 학생운동 혹은 사회운동을 통해 비판적 의식을 형성한 포스트메모리 세대이다. 이들에게 대구·경북은 보수적인 정치성과 강한 가부장성으로 인해 젠더에 따른 차별과 운동의 ‘막힘’을 경험하는 장소였다. 동시에, 지역은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밥상 공동체’를 통해 상호 돌봄의 여성 연대를 가능케 했던 ‘트임’의 공간이었다. 이들은 피해생존자와의 만남에서 초기에는 편견이나 세대 차이로 인한 충돌을

86) 정연보,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고민들」, 『한국여성학』 31(3), 한국여성학회, 2015, 31쪽.

겪었으나, 공감적 경청과 “세계-이동”을 통해 정동적 연대를 형성했다. 특히 피해자를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논쟁과 토론을 통해 운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원활동을 보편적 여성인권운동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이들의 논쟁은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성을 피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제로 ‘다시-제시’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제한된 당사자성의 ‘금지’ 영역을 한국 사회 전체로 이동시키는 당사자성의 ‘난로’ 영역을 확대하는 휘말림의 정치를 실천했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위안부’ 운동은 활동가들의 생애에서 삶의 경로를 바꾼 변곡점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차혜영은 10년 후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했다. 활동가들은 생존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당시에, 생존자 없는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역할을 ‘기억 전달자’로 위치 지었다. 기억 전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피해자의 기억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기억에 휘말린 이들은 지금-여기의 구조적 폭력을 인지하고, 안다는 행위의 상처를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위안부’ 문제를 금지 영역으로 만드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저항과 연대의 공간인 ‘난로’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기억의 계승자들이다.

기억의 계승자로서 이들의 삶은 현재 ‘위안부’ 운동, 제도정치, 마을 공동체, 반성매매 운동, 인권 교육, 노동 운동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심층면담이 진행 중이던 ‘2023년 현재’,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면담 공간 밖에서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운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의 우려는 지금-여기 ‘위안부’ 운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주고, 그들이 논쟁했던 ‘위안부’ 문제의 폭넓은 당사자성과도 연결된다. 피해자의 기억에 휘말린 이들의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이 경험한 휘말림의 정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이란 ‘과거’가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오래된 현재’였으며, ‘오래된 현재’는 바로 지속되는 공동체의 책임에 의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소식지 56호, 2005.5.14.

_____ 62호, 2006.5.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경상도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술 채록 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_____,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 기록물 조사·전시 - 경상도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술채록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_____,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성 연구 - 경상도지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a.

_____,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성 연구 - 최종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b.

2. 논저

권김현영, 「성폭력 폭로 이후의 새로운 문제, 피해자화를 넘어」, 김은실 편,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페미니스트 크리티크』, Humanist, 2018.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오월의 봄, 2020.

김명희,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기억의 연대」, 『한국여성학』 38(4), 한국여성학회, 2022.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30(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3.

김영순 외, 『질적 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2018.

김영찬, 「‘90년대’는 없다-하나의 試論, 1990년대 ‘를 읽는 코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김영희, 「밀양 탈송전탑/탈핵 운동 주체로서의 ‘여성’: ‘밀양 할매’와 ‘여성 연대 (the female solidarity)」, 『동방학지』 18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외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창록 외, 『(가칭)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8.
-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 도미야마 이치로(冨山一郎), 「휘말린다는 것」, 정성희 옮김, 『부커진 R 4호-휘말림의 정치학』, 그린비, 2012.
- 마치다 타카시(丁田隆),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일본인의 다층적 경험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도미야마 이치로 외 지음, 『폭력에 대항하는 법』, 세창출판사, 2024.
- 문경희, 「경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가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 본 피해자들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 『젠더와 문화』 15(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2.
- 문경희·유현미, 「지역성 재구성의 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시민연대와 기억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8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4.
- 문재원 외, 『젠더와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 박정애,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담다-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 박해남, 「1990년대의 국제화·세계화와 대중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 서혁수,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위안부 운동 및 확장을 고민하며- 대구 위안부 역사관 '희움'을 중심으로」, 배지연 외 지음, 『문화융합 시대의 지역사회: 일본군 '위안부' 문목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2023.
- 손선희,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쓰기: 대구경북 지역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41(1), 한국여성학회, 2025.
- 신동규, 「일본군 '위안부'의 일본군 '위안부'의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 경험: 서발턴(subaltern) 여성과 일상 속의 트라우마」, 『젠더와 문화』 15(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2.

- 안이정선, 「문옥주와 군사우편저금, 배지연 외 지음, 『문화융합 시대의 지역사회: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2023.
-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 '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22(3), 2006.
- _____,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었)나?: 그 내용과 철차」, 『민주법학』 6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 오한숙희, 『아줌마 밥 먹구 가: 오한숙희의 자연주의 여성학』, 여성신문사, 2002.
-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_____,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 역사』 115, 한국 사회사학회, 2017.
- 이령경, 「우연과 우연이 겹쳐 필연, 운명으로-문옥주와 모리카와 마치코의 삶과 인연」, 배지연 외 지음, 『문화융합 시대의 지역사회: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2023.
- 이송희, 「부산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 석영미 편, 『부산지역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역사자료집』, 부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3.
- 이재성, 「철학적 지형학으로 들여다 본 '장소와 경험」, 『로컬리티 인문학』 1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이정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이지영, 「일본군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증언집, 사진집,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3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 이태준, 『일본군 '위안부' 여성의 주체화 과정과 사회적 성원권 연구: 이용수의 삶과 투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이혜숙, 「한국여성학과 지역 여성주의의 모색: 경남지역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2), 한국여성연구소, 2014.
- 장소정,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기억과 정동의 배치: 평화나비 활동가

-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정다울·이나영,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하기: 대학 사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 정미애,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시민활동」, 『담론 201』 9(2), 한국 사회역사학회, 2006.
- 정연보,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고민들」, 『한국여성학』 31(3), 한국여성학회, 2015.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의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13.
- _____,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 1986~98」, 한국 여성의전화 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20.
-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1), 한국여성학회, 1996.
- 주보돈, 「새롭게 읽는 대구의 역사」, 김영화 편, 『대구경북의 이해』, 양서원, 2014.
- 최 정, 「포스트식민의 망각에서 포스트메모리로」, 『한국언어문학』 127, 한국언어학회, 2024.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2014.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21.
- Clandinin, D. Jea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 외 옮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2018.
- Clare Hemmings, "Affective Solidarity: Feminist Reflexivity and Political

- Transformation”, *Feminist Theory*, Vol.3, No.2, 2012.
- Carol Gluck, “記憶の作用—世界の中の「慰安婦」”, *感情・記憶・戦争*, 정실비 외 옮김, “기억의 작용-세계 속의 ‘위안부’”, 『감정·기억·전쟁』, 소명출판, 2014.
- Doreen Massey,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Vol.78, No.2, 1993.
- Elaine Scarry,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ld*, 메이 옮김, 『고통 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 봄, 2018.
-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2019.
- Joan W. Scott, “Experience”,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Judith Butler and Joan W. Scott. eds., New York: Routledge, 1992.
- Kim Hee-Kang, “Nationalism, Feminism, and Beyond: A Note on the Comfort Women Movement”, *New Zealan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17, No.1, 2015.
- Lee Na-Young, “Multiple Encounters and Reconstructed Identities: Halmoni Activist-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Postcolonial Subjects”, in Nusta Carranza Ko ed., *New Ways of Solidarity with Korean Comfort Women: Comfort Women and What Remai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3.
- Lois West, “Introduction: Feminism Constructs Nationalism” in Lois West ed., *Feminist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 Margaret Cruikshank,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이경미 옮김, 『나이들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동녘, 2016.
- Maria Lugones, “Playfulness, “World”-Travelling, and Loving Perception”, *Hapatia*, Vol.2, No.2, 1987.
- Marianne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Poetics Today*, Vol.29, No.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 Soh Chunghee Sarah, “The Korean “Comfort Women”: Movement for Redress”, *Asian Survey*, Vol.36, No.12, 1996.
- Stephen Morton, *Gayatri Chakravorty Spivak*, 이윤경 옮김, 『스피박 넘기』,

앨피, 2011.

森川万智子, 文〇〇ビルマ戦線橋師団の「慰安婦」だった私, 김정성 옮김,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山下英愛, 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 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울, 2012.

3. 기타 자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헌책방의 색다른 변신, 대구 지역문화공동체 물레책방」, 2012.4.17.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View.html?idxn=7109>, 검색일: 2024.4.10.)

대구역사문화대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aks.ai/GC40004248>, 검색일: 2025.6.20.)

『여성신문』, 「[여성의 삶을 바꾼 30대 사건] 태아성감별로 인한 여아 낙태 “남아 선호 고질병”」, 2018.11.2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182180>, 검색일: 2025.10.2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정관」 (<https://womenandwar.net//bylaws>, 2024, 검색일: 2024.5.11.)

『한겨레』, 「남은 생존자 6명뿐... “공식 사죄 없는 ‘위안부’ 합의 10년, 정부 해결 나서야”」, 2025.12.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7394.html>, 검색일: 2026.1.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문날인 거부운동」,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596>, 검색일: 2024.3.8.)

『週刊 金曜日』, 「従軍慰安婦には返還されない軍事郵便貯金」, 1994.5.20. (<https://www.kinyobi.co.jp>, 검색일: 2024. 4. 10.)

〈Abstract〉

**The Longstanding Pres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 Daegu-Gyeongbuk
- Support Activists’s Feminist Movement Experiences and Partyhood -**

Son, Seon-Hui

This study analyzes the life experiences of ten activists support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Daegu and Gyeongbuk, who have been marginalized in centralized research, through oral life histories and in-depth interviews. To this end, drawing upon feminist experience theory, I utilized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research. The participants developed a critical consciousness by sharing the temporality and sociality of social movements during the 1990s. They also experienced the “blockage” of their activities due to the political conservatism and patriarchy of Daegu and Gyeongbuk. Meanwhile, they created political spaces of “opening” through the female solidarity, such as the feminist meal-sharing network. Initially, the activists faced friction with survivors due to generational gaps and prejudices; however, they achieved affective solidarity through empathic listening and “world-traveling.” Notably, they did not view the survivors merely as objects of support but recognized them as agents of the movement through ongoing debate and dialogue. In that process, they sought to re-present the partyhood of the “comfort women” issue, expanding it from the victims to a concern for all members of Korean society. These interactions served as biographical turning points, as local activists became “entangled” in the survivors’ memories, reconstructing themselves as successors of memory and human rights activists. Ultimately, the “comfort women” movement in Daegu and Gyeongbuk demonstrates the “longstanding present”—a movement that, through the activists’ persistent sense of responsibility, transcends historical trauma to

address universal women's rights issues in the here and now, moving toward the future.

* Key Wo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Daegu-Gyeongbuk, Support Activist, Feminist Movement Experience, Partyhood

· 논문투고일: 2026년 2월 1일 · 심사완료일: 2026년 3월 26일 · 게재결정일: 2026년 3월 27일
--

